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무도 간절한 소망으로서의 자유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갓난 아기를 때리는 수평으로 누워 있다가 기는 과정을 거쳐 '따로따로' 혼자 서고, 마침내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이다. 서고 걷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직립(直立)의 인간이 된다.

박노해는 '걷는 이유'를 "나는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 나는 이대로"

걸으며 생각한다

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내 하나뿐인 육신과 정신마저 / 이대로 망가지게 내 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인간에게 있어 걷는다는 것은 확실한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나는 걷는다는 책을 쓴 베르나르 모리비에르는 "어떤 종교도 신도들이 순례에 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홀로 걸으며 생각을 하는 동안 근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는 대신 최소한 2천5백km 이상을 걸어서 여행하게 한다고 한다. 소년원에 보내서 교화를 받게 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반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걷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걷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요, 곧 철학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루소는 "산보를 즐기는 동안에는 그날 중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는 자아 속으로 되돌아가 '나'만을 위하여 즐길 수 있고, 빈틈없이 인간의 진실과 자연이 소망하는 그대로의 존재로 되어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고독한 산보자의 꿈)이라고 하였다.

나는 농사짓는 날을 빼고는 어김없이 동네 산으로 새벽 산책을 간다. 나는 산속을 걷는다는 기분으로 등산을 한다. 그것은 먼 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 많은 생각을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런저런 공리도 이때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생각한다. 어제 오늘은 노무현의 죽음을 생각했다. "하늘은 결코 인간이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데, 노무현이야말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오늘도 나는 걸으며 생각한다. <인문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야비한北 핵실험, 단호·의연하게 대처해야

북한이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의 조치에 "즉시 사회"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시범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사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 지금 남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 재임시절 보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온 노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도의가 아니다.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장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사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 지금 남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 재임시절 보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온 노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도의가 아니다. 나라 안팎이 뒤숭숭한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장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비핵화 공동 선언과 6자 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자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도발행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복귀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얘기가.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그에 대해보다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냉정함을 잃고 선불리 대처할 경우 자칫 북한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갈팡질팡 행보를 멈추고 단호한 원칙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특히 6자 회담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시민들 역시 북한의 핵실험에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입장을 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노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에 핵실험의 타이밍을 잡은 속셈이 무엇인지 드러난 이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연한 대응이다.

소록도 무분별한 방문 안 된다

소록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와 녹동항을 잇는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소록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해 환경 오염과 훼손은 물론 소록도 내 원생들의 일상생활마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록도는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16년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한센인을 강제 이주시키려던 수단으로 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려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현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개원 93주년을 맞은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가 100년 가까이 수많은 한센인이 겪어왔던 차별과 병대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600명이 넘는 한센인과 병원 직원 190명이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소록도는 일반 유원지나 관광지가 아닌 한센인들의 삶이 터전인 것이다. 그런데 소록도가 지난 3월2일 소록대교가 개통된 이후 하루 수 천명의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들은 등산장보, 쓰레기 담배꽂초 투기, 음주 소란 등을 일삼고 있다. 특히 잔디밭이나 화초 등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져 소록도의 환경 오염과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원생들이 바깥 나들이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록도가 지난 3월2일 소록대교가 개통된 이후 하루 수 천명의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들은 등산장보, 쓰레기 담배꽂초 투기, 음주 소란 등을 일삼고 있다. 특히 잔디밭이나 화초 등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져 소록도의 환경 오염과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원생들이 바깥 나들이를 꺼리는 실정이다.

소록도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록도는 엄밀히 말하면 한센인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병원이지 결코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의 자제가 필요하다. 당국도 관광 수입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방문객 제한 등을 통해 소록도와 원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담배 있는가?" "없습니다. 가져올까요?" "아니 됐네..."

지난 23일 갑작스런 서거로 큰 충격을 몰고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부엌이 바위에서 투신 직전 뒤를 따르던 경호관과 나누던 대화다. "민길"을 떠나기 위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사자를 나섰던 노 전 대통령은 담배 연기에 이승의 회한을 사르고 작별하려 했을지 모르겠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담배가 등장했다. 광주에서는 한 여대생이 끝내 담배 한 대 태우지 못한 채 비운의 생을 마감한 그를 기리며 담배를 울렸다. 대통령 시절 '정치적 경호대상'으로 불리던 유시민

2002년 12월 20일.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희정,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정윤재 등 386 측근 전원을 당시 서울 해화동 사저로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담배갑을 꺼내 방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한 개비씩 권했고, 직접 불도 붙여 줬다고 한다. 일부가 대통령 당사자와의 '맞담배'에 주저하자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젠처럼 나를 똑같이 대해 달라"며

노무현, 그리고 담배



담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 시절 주변의 건강 걱정에도 금연을 시도했지만 관망할 날이 없었던 탓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담배에 손을 다시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치사의 '이단아'로 불리며 불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눈시울을 붉힌 채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영정 앞에 놓았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담배를 고뇌 해소 방편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 통로'로 활용했다. 그래서 담배와 관련된 일화도 많다. 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기고

김명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올해 3월 22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유지된 식품을 제공해서 어린이 건강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은 안전하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있게 제공되

는 식품 등은 보관·진열·판매·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병장·병동하여야 하는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분식점에서는 구합한 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조리에서 사용되는 락스, 식용도기 등의 식품 재료는 유통기한 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중요하다

어야 한다. 어린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 유해한 식품은 제조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나 분식점, 자판기, 매점 등에서 열람이 높고 비만과 질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법의 시행 초기인 만큼 학부모와 학교주변의 식품 취급업소 등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나 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있는지, 제품 중에 극약을 알 수 없는 제품이 있는지, 제품의 표시내용에 업소명이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제품의 표시내용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가 표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담배갑 모양, 술병 모양, 화투, 돈 형태 등 어린이 정서에 위해를 줄 수 있거나 인체의 특정 부위 등을 나타내는 모양과 표시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

적정한 제품만을 쓰도록 하며 음용수는 마시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식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컵과 식기류 등은 소독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방송을 이용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할 때 그 광고 시간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하여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듯 어린이의 먹을거리는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다.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영양적인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다. <광주시 보건위생과장>

현금지급기 보이스포싱 경고문 크고 선명하게

한 지방의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앞에 써 붙인 대문짝만한 경고문 글씨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내용은 "고객님, 우체국 경찰 공공기관 전화를 받고 오시는 길입니다? 100% 전화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시키는 대로 기기를 조작하면 소중한 예금을 뺏깁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분들이라는 점을 감안, 전화사기라는 글씨는

빨간색으로 눈에 확 들어왔고 안내문 크기에도 커다랗고 선명했다. 정말 보이스포싱을 고려하여 현금지급기 단말기까지 왔던 사람들도 그 경고문을 보면 "아차, 사기를 당하고 있구나"싶어서 전화를 끊을 것 같았다. 모든 현금지급기 단말기 주변에 이렇게 입간판처럼 넉넉하고 큰 칸판에 크고 선명한 글씨로 짧고 간략하게 경고의 안내문을 붙였으면 좋겠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기고

손홍식



우리나라가 혈액사업을 시작한 지 어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혈액에 대한 중요성과 헌혈의 필요성은 국민들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이를 넘어 건장한 시민들이라면 기꺼이 헌혈에 동참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는 찾아가는 헌혈에서 시민들 곁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선진형 헌혈의 집이 시내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았고 대학 구내에도 헌혈의 집이 설치되어 헌혈자를 맞이하고 있다.

앞에 주사바늘의 따끔함이나 요즘 나오는 광고의 "당신의 1초의 정그림으로 한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멘트가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고품질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6세~65세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헌혈 상한 연령이 지난 1월 31일 혈액관리법의 개정으로 69세까지로 상향조정되었다.

헌혈에는 정년이 없다

그리고 또한 과거 전철시대에서 지금은 성분헌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혈은 주로 응급 수혈용이며 성분 헌혈은 혈액은 알부민 등 간접수혈용 혈액 제품으로, 혈소판은 백혈병환자에게 수혈된다.

잘 알다시피 전혈헌혈은 우리를 체내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 등 노폐물을 제거하며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혈소판은 면역작용을 한다.

시대에 따라서 헌혈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시대 권위형에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헌혈의 집에 들어선다. 헌혈을 해야하는 공적인 이유가 혈액은 다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위성

단지 61세~64세까지 헌혈을 해온 다 회헌혈자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도 건강하지 않으면 헌혈을 못하는데 나이 먹었다고 헌혈 못하게 하면 되나" 고 한 분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게 되었다.

어기에 그러지 않고 더 나아가서 69세가 지나서도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이 된다면 혈액헌혈의 허가를 받아 그 이후에도 헌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때에 그 나이까지 무슨 헌혈을 해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헌혈할 수 있다는 자체가 건강의 상징이기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9988' 구십구제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이다. <헌혈기네스(555회인)>

농민 사망시 땅 상속, 도시 자녀 소유 인정해야

요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노 부모들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대부분 60, 70대 인 농민들은 그 자신이 죽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 이미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부채지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남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70 평생 농촌에서 땅을 지킨 농민들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시인들은 땅이나 건물을 얼마든지 유산으로 상속하는데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 아닌가. 현재 쌀 직불금의 문제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

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는 비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땅보다 보통 3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임차농의 임차료 문제, 부채지주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70년간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이 그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농촌의 땅을 아무 연관을 없는 도시인들에게 팔 경우에만 여러 법을 적용해서 규제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농민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되는 땅은 그 자녀가 결국 부채지주가 된다 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촌동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영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대로 지급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website, and subscription rates.